

보도일시	2022. 3. 24(목) 조간 *방송통신인터넷 3.23(수) 12:00	배포일시	2022. 3. 23(수) 11:00
담당	국제통상부장 김태환(02-2124-3160), 사원 이수아(3161)		

수출입 中企 79%, 우크라이나 사태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

□ 중소기업중앙회(회장 김기문)는 수출입 중소기업 313개사를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간 실시한 『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중소기업 수출입 애로 실태조사』 결과를 발표했다.

○ 이번 조사는 최근 러-우크라이나 사태로 직·간접 영향*을 받는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.

* (직접영향) 러시아,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 수출입·진출 / (간접영향) 기타 국가 수출입·진출

[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사 결과]

□ 조사 결과, ‘러-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애로를 겪고 있다’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0곳 중 7곳 이상(70.3%)으로 높게 나타났다.

○ 이번 사태 영향의 지속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▲2023년 이후(30.5%), ▲2022년 4분기(29.1%) ▲2022년 3분기(20.0%) 순으로 응답하여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그림1> 러-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여부 (단위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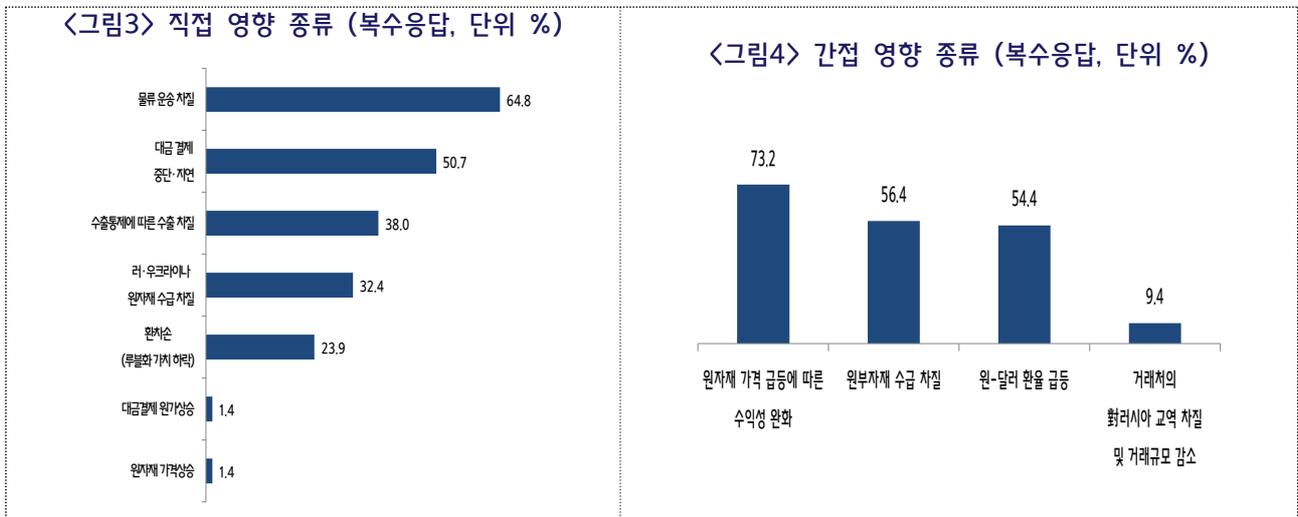


<그림2> 러-우크라이나 영향 지속 예상 기간 (단위 %)



□ 러-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 32.3%는 ‘직접적인 영향’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, 67.7%는 ‘간접적인 영향’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.

-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(복수응답)으로 ▲물류 운송 차질(64.8%)이 가장 많았으며, ▲대금 결제 중단·지연(50.7%) ▲수출 통제에 따른 수출 차질(38.0%) 순으로 나타난 반면,
-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(복수응답)은 ▲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(73.2%)가 가장 많았고, ▲원부자재 수급 차질(56.4%), ▲원-달러 환율 급등(54.4%) 순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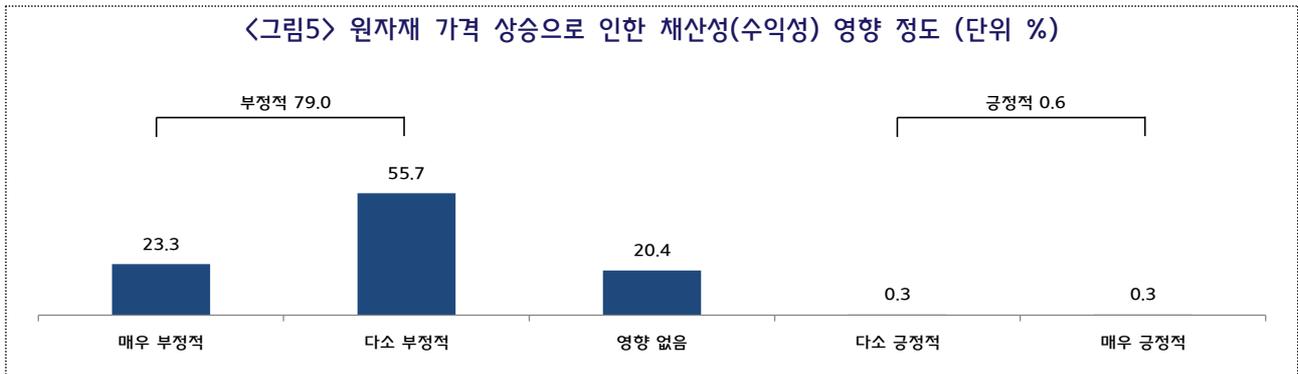
□ 이번 사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(복수응답)으로 ▲원자재 비축물량 확보(35.1%)와 ▲납품단가 인상(35.1%)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,

-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31.6%에 달해, 추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기업들이 원하는 정부 지원책(복수응답)으로는 ▲원자재 비축물량 확보 및 중소기업 우선 수급(46.3%)이 가장 높았으며, ▲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(41.2%) ▲안정적 외환시장 관리(35.8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[원자재 가격 상승 조사 결과]

- 이번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의 재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8곳인 79.0%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.
-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▲30%~10%초과 하락(33.2%), ▲10% 이하 하락(29.1%), ▲50%~30%초과 하락(18.6%), ▲50% 이상 하락(10.5%) 등으로 나타났으며, 영업 손실 전환을 예상하는 기업도 8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

-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격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4.2%의 기업만이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가격 반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^(복수응답)로는 ▲가격 경쟁력 약화(49.2%)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, ▲장기계약에 따른 단가 변경 어려움(46.8%), ▲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(39.7%) 순으로 응답했다.
- 원자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자체 대응책^(복수응답)으로는 ▲원자재 외 원가 절감(39.6%)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▲원자재 선(先)구매 및 확보(31.3%), ▲납품가격·일자 조정(29.1%), ▲대체 수입처 검토(16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, ▲대응 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1.1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희망하는 정부 지원책^(복수응답)으로는 ▲원자재 가격 및 수급 정보 제공(34.5%), ▲원자재 구매 대금·보증 지원(32.3%), ▲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(29.4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▲납품단가

연동제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20.1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-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중단,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격”이라며, “원자재 가격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붙임 : 조사보고서 1부. 끝

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(여의도동) Tel. 02-2124-3060~4 Fax. 02-782-0248